

‘최악 AI’ 닭·오리 2000만 마리 살처분, 전체 10분의 1이 사라졌는데...

## 감염경로 ‘오리무중’ ‘계곡’된 공장형 축산



해마다 예산 수백억원 ... 방역 등 인력 9000여명 ‘고위험군’  
전남 9개 농장서 발생 ... 입식제한·폐쇄 등 전향적 대책 절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다. 매년 반복되는 AI에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검사한 뒤 살처분하는 ‘아날로그식’ 되풀이 대처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방역과 살처분 등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 관계자 등 AI로 인한 9000여 명의 고위험군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일 현재 살처분 닭·오리도 2000만마리에 이르러 달걀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AI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등의 산란계, 오리 등의 입식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험지역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입식을 제한하고, 2~3년 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군 용방면, 나주시 남평읍 옥용오리 농장이 농립축산

작으로 이를 뒤 무안에서 발생한 뒤 나주에 집중됐다. 전남 동부권인 구례까지 확산한 모양새다. 반경 500m 또는 3km 이내 방역대에 포함된 농가까지 모두 34개 농가 62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구례 용방면 농장은 이미 AI가 발

생한 전북 정읍 씨오리 농장의 알을 다른 부화장으로 옮겨 부화시킨 새끼 오리를 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에는 철새도래지가 없어 애초 의심 신고 때부터 농장 간 수평감염이 우려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같은 새끼 오리를 입식한 다른 농가들은 물론, 10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일제검사에 서도 이상이 없어 농장 간 감염을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 남평 역시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I가 종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재정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살처분에만 30~40명의 인력이 동원되는데다 22개 시·군의 검문초소, 검사·방역에 소요되는 인력도 지난달 16일 이후 주말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이나 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추정치)만 50억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콜록 콜록’ 예년에 비해 일찍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면서 어린이·학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광주 북구 한 아동병원이 진료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독감 비상...광주·전남 학생 3000명 ‘등교 중지’

시·도 교육청 조기 방학 검토

독감(인플루엔자)으로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에서만 3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청은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에 조기방학 검토를 지시했다. 20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는 이날 현재까지 160개 초·중·고교의 학생 1218명이 독감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77개 초등학교가 학생 537명에게 ‘등교중지’(학교장 인정 결석) 결정을 내려 가장 많았고 중학교 52개교(368명), 고교 30개교(312명) 등이다.

전남도 이날 현재 216개교(초등 112·중등 57·고등 46·특수 1개교) 학생 2788명(초등 1530명·중등 939명·고등 317명)이 독감

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를 앓고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집계했다. 이들 대부분이 등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가 급증하면서 교육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11월 28일~12월 12일까지 3주 간 267명(91개교)의 학생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분류됐으나 지난 13~20일 1주일 간만 1218명이 독감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전남도 비슷해 12월 1~3일

학생 10명(6개교)이 독감에 걸렸지만 지난 11~17일 1주간 독감 환자는 1348명(87개교)에 달했다. 지난 18~19일 이틀간 960명의 학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독감으로 인한 결석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점을 감안,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환자의 등교 중지 조치 외에 조기 방학도 검토할 것을 안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특검, 우병우 행적 수사

오늘 현판식 본격 활동, 직무유기·세월호 수사 외압 파악 나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3면>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면서 “내일(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장을 받은 이날 1일부터 이날까지 특검보고서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인선하고 대치동 D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일부 사건 관련자를 사전에 만나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이 특검보는 “인원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0명 이하의 다수”라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색 등 강제수사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만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특검이 규명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당시 그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결 압수수색 대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이 특검보는 “직무유기 부분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제기되는 의혹도 검토한 이후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외에 특검 측에 직접 고발되는 사건도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12일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청문회대 비서실장을 고발했고, 이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장정욱 변호사를 징계하는 과정에 검 진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을 냈다. /연합뉴스

## 순천시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

권익위, 기초의회 29곳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순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각각 기초의회(평가 대상 29곳), 광역의회(17곳)에서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지난 9~11월 지방의회·자치단체 직원, 지역주민,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1만95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이년 내용의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광역의회 중에는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기초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6.74점으로 1위였

다. 순천시의회는 점수(5.31점)가 가장 낮았다. 전남도의회의는 2등급, 광주시의회는 3등급을 받아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립대학 청렴도에서 순천대는 2등급, 목포해양대 3등급,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은 각각 4등급으로 조사됐다.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병원 중에는 충북대병원(7.70점), 제주대병원(7.59점)이 청렴도 상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대병원(7.40점)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대병원(6.39점)은 꼴찌를 기록했다. 전북대병원(6.81점), 경상대병원(6.85점), 부산대병원(6.90점) 등도 최하위 5등급이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인양 중국인 잠수부 인터뷰

“미수습자 9명 확인 어려워” ▶6면

양현종 KIA서 1년 더 뛴다

22억5000만원에 재계약 ▶20면

제62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음악부 지정곡 ▶1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1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약화장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